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교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정환 편집국장: 이형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은혜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엡 5:2)

2003년도 제1차 청지기훈련에 대하여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
청지기훈련은 2월 12일(수)~14일(금)까지 실시한다.
200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기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임장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일꾼으로서의 바른 정신과 태도로 무장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중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제직과 봉사자, 그리고 전(全)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청지기훈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주제로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미리 묵상하는 첫째 날 메시지 - “깨어지자”
본문과 “깨어지자”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나 어호와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도라. 내 목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렘 4:3).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의 백성의 평온을 깨뜨리신다. 이것은 기독교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역설이다. 왜냐하면 그 일의 결국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깨어짐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하신 목적 때문에 그 백성의 평온을 깨뜨리시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리가 된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신(神)을 찾는다.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과 의지를 바라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육신의 안락만을 요구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은 땅을 갈아엎듯이 자신의 영혼을 철저히 깨뜨리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영혼의 깨어짐, 즉 고통과 희생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사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고 지속해왔다. 아담이 그랬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는 십자가에서 맺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과 손을 잡았다. 정작 하나님이 할 것은 죄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피조물은 스스로 창조주와의 관계를 깨뜨리었다. 이제는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그분의 영원하고 부도러한 품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과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영혼을 갈아엎아야하고 산성이 깨뜨려야만 한다.

그리고 열매를 위하여 땅을 기경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마음의 밭을 경작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을 향하여 속이 감추어두지 말고 세상을 비추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어서 오천명을 먹이셨듯,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을 깨뜨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던 것처럼, 각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아를 깨뜨려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라.

구약에 나타난 선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범죄에 빠졌을 때, 이사가 선지자는 바바의 동행과 모든 열방의 제국을 여행하고 드라지 말라.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왕들이 자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진화할 것이라 고언했다(사 60:5). 놀랍게도 그들의 열은은 하나님께 드릴 방대한 산재물이 될 것이며, 이러한 구원의 은송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바로 이방선교와 결결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메시지와 이방선교가 구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온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라고 말하며(롬 15:8~9). 이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뜻한다(갈 3:8,14).

이제 전적으로 열방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 다(롬 15:10). 이것은 바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으리라 고언하고 한결같이 주셨던 약속의 확실한 성취이다(창 22:2~3). 바울의 증거만 아니라(롬 15:11~12). 이사야의 예언대로(사 11:10~11),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인 유대인의 종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를 이루셨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분. 그 씨를 통하여 약속대로 이 지구상의 온 족속이 구원에 이르는 복된 소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경자 온 열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이다.

진실로 구약성경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창 22:5, 시 135:4, 시 117:1). 모세의 유언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신 32:43). 즉 이방선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또 모든 민족의 권들을 부르신 때에 이미 그들에게 열방을 사명하고 하나님의 의지였으며, 결코 늦추어 덧붙여져서 행해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이방로 이방인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선지자였으며, 그래서 사도행전과 사서신서 대부분에는 이방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이 흘러넘치고 있다(행 9:15~16, 행 22:3~5, 8, 14, 15).

이방인의 출현한 수 가 그리스도를 먼저 깨달아 그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고 1:10, 2:23) 그 계획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방인의 출현한 수가 하나님께 나타나는 다(롬 15:11~12). 그러므로 이방선교에 선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 변질 또는 변화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롬 11:25~27, 사 55:20~21, 사 27:9). 오히려 구약에 나타난 선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약전체를 형성 하는 골조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하여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약에 있는 선교와 유대인의 계획, 구약에 있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구약의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각자의 사람들, 민족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정당성이 그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논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단일한 태도로 살았고, 그들이 특권지위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상변없이, 또 다시 ‘말몬(Mammon, 바 6:24)과 혼미함이 스스로 자신의 인연과 안락을 지키려는 가인의 성(6:25)을 잃고 있다. 기가에는 이유가 있다. 고아가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History)’를 ‘그들의 이야기’로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이방선교를 살 것인가? 복음의 빛을 감기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온예를 저버리고 인위적인 배제법만 것인가? 선복은 자유원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야 할 책임은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렘 3:13, 20).

총현교회의 5대 목표를 위한 제언(1)

신령한 예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초석이요 신앙의 근본적 행위이다. 이것은 예배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자면, 모두가 인정하듯이 기독교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은 은혜의 수단은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배를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배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멀어지자 죄인들을 하여금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지혜와 의지의 주조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별사이에 의해서 시작된 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창 4:5, 유 1:11). 또는 주님의 교회와 감도의 굴절(斷)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마 11:17).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주가 성에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요 4:24).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기독교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되시며, 대제 사장이시요 완전한 화석체물로서,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예배를 단번에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현교회가 첫 번째 목표로 삼은 ‘신령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어떻게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은 위해서 총현교회는 ‘준비된 예배’를 제정하고 있다. 신령한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준비와, 예배를 진행하는 일꾼들의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성도를 각자에게 예배에 대한 정경한 성경적인 요구를 충족하도록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후자의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마다 주교를 발행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예배마다 더욱 그 시기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예배 전 찬양이 있다. 찬양자들은 거의 인연 전부터 기도문 준비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총현의 성도들은 15분 전에 도착해서 찬양을 묵상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강단에 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은 시대에 대한 영향력만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ரி진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며, 그 깨달음 총현회와는 가까운 길을 선택했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상상으로 복음만을 선포할 뿐이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통해서 신령한 예배를 받게 되실 그 날까지 우리에게는 성경적이고 영회롭게 하는 예배를 주께 드려야 할 일이 남아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은 7면을 참조하세요

WITNESSING THE GOSPEL

(Acts 1:8)

"...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Jesus Christ has commanded every church and its members to witness the gospel, which is the good news of the redemption, and what it has done for us. When Jesus Christ commissioned the commandment He gave very clear instructions concerning what Christians are to do, what Christians are to say, and where Christians are to go. Regardless of what size the church is or what kind of financial position it is in, the most important task they are responsible for is witnessing the Gospel. How many churches in Korea, the United States, or any other country actually have missions as their primary goal? Unfortunately, not many churches place missions first. Sure, they have mission programs and designate a small portion of their finances toward them, but their major concern is not witnessing the gospel. Why did Jesus come to this earth? He came to redeem the lost. Our primary concern, without any doubt, is supposed to be mission work. God's will is for us to witness the gospel to people in our homeland, those close to our boundaries,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Choong Hyun's first order is to testify to others about the gospel of redemption. Corporately and individually are main purpose is to witness the saving power of the gospel. Our church's principal goal is missions. Corporately our testimony will verify with all others that the effects of the gospel are the same. Individually our personal testimony will be just as effective as that of the Apostles Peter and Paul. Since our testimonies are so important, let's carefully look at our Lord's instructions, so that we can live our lives in accordance with His will.

What should we do? It's important we understand the vision. Our lives changed when we accepted Jesus Christ as our Lord, Savior, and Redeemer. That change is what changes the lives of others. Whenever the gospel comes to someone and they receive it, it changes them and makes fruit. It's the same when we witness to other people—if they receive it, then they should change and have that same fruit bearing experience. Colossians 1:6 tells us the gospel "which has come to you, just as in all the world also it is constantly bearing fruit and increasing, even as it has been doing in you also since the day

you heard of it and understood the grace of God in truth."

As true disciples, we will not be disobedient but will ask the Lord what He wants us to do. Paul did not prove disobedient to the heavenly vision, even under persecution (see Acts 26:19). He witnessed the truth. Jesus had changed his life, and now he was bearing that fruit. Without being born again, no one can witness the real gospel. It's only when you accept the Gospel that you become born again. Then, and only then, there's no doubt or disobedience. When you have the experience, the truth, and the evidence;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e in a palace, market place, political gathering, or jail, you are a witnes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rue believers witness to what Jesus has done for them.

What should we say? We have to tell other people that if they confess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believe in their heart that He resurrected from the dead, then they wi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Rom. 10:10). When a person accepts Jesus Christ into their life, the Holy Spirit comes into them and they receive power. They change! This change and this power enables them to go and witness the gospel to those still lost. Wherever God sends them, they have the power to witness because they have the Holy Spirit.

After Jesus ascended, 120 people gathered in the upper room of Mark's home and received the Holy Spirit. That fact changed the whole world upside down. As such, whenever someone receives the gospel, a big change occurs. Amen. When the Holy Spirit dwells within you, He is in control, not you. You are to deny yourself, so that He can lead. Under His control, He will teach us what we have to do and what we have to say. Before Peter understood the gospel he was a coward, but once the Holy Spirit came down on him he was bold and brave. Even when the high officials killed Stephen in hopes of breaking the gospel message. Christians didn't hide but scattered about "preaching the word" (Acts 8:4). Jesus said concerning the Holy Spirit, "But I tell you

the truth,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go away; for if I do not go away, the Helpe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Jn. 16:7). The Holy Spirit is the Helper we need to speak the words of the gospel to those who need to hear. True believers speak God's word through the Holy spirit.

Where should we go? The gospel is for the whole world. It is universal in scope. Missions is God's business and the first order of the day! The commission to preach and teach the gospel everywhere is the basis for world evangelism. Jesus said,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Mt. 28:19). Amen. There's no preferential treatment. All the earth is a field in need of harvesting. Paul told the Romans, "I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So, for my part, I am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Rom. 1:14-16). Christians can witness anywhere and to anyone.

The gospel is for everyone who believes. It's the most valuable thing in all the earth. That's why it's God's business and that's why He sent His Son. There is only one gospel! As such, we have only one task, and that task is to be obedient to the Lord's great commission. Our minds and hearts should love the work and be totally committed to doing God's perfect will. Jesus Christ has given us His Spirit to know what we need to do, what we need to say, and where we need to go. My dear friend, if we are obedient and true followers of Jesus Christ we should recognize and realize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e should know our position and our relation as a member of His body. True believers hear His voice and go where He sends them.

Choong Hyun will communicat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whole world because we have the light! Our primary concern is to obey Jesus and follow Him. We know what Jesus wants us to do and say, and where He wants us to go. That's why this year our church must send more than 1,500 short term missions to where we've been led. If you've received Jesus Christ as Savior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then you can hear His voice. You can hear His call for you to "Go"! Don't make excuses and don't be disobedient. Are you willing to go? If you deny yourself, the Holy Spirit will empower you. He will change you. You will be able to witness because you've changed. The people God places in front of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hange also and bear fruit because of what God has done for you. God bless you. 🙏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와 교회의 회중들을 위하여, 구속의 좋은 소식이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복음을 증거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명령을 위하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명확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재정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교회가 책임이 할 가장 중대한 임무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교회들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주된 목표로 선교를 삼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선교는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재정을 선교 명목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살아버린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의 여지 없이 그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또한 우리 나라 주변에,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현교회의 존재 목적

증현교회가 이행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은 구속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요한 관심은 단체로든 개인으로든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단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증인들과 함께한 복음의 영향력이 똑같은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고, 개별적으로 각 개인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효과적인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요 구속자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든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인생든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은 변하여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경향을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6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전파에 대한 순종

우리는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 순종해야 하고,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필립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행 26:19 참조). 그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는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듭남 없이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거듭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진정한 자라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진리를 거듭난 증거를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는

증거되는 복음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김성만 목사

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궁이든지 시정터든지 혹은 정치인들이 모인 곳이든지 감옥이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게 함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임을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 모시게 될 때, 성령은 그 속에서 임하시며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은 변화됩니다! 이 변화와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살아버린 영혼들에게 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어디든지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전해야 함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니다. 그 일은 모든 세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은 어디든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자신이 아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말해야만 하는 것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겁쟁이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이후로 그는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위 관직자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소멸되어질 것으로 기대하던 스데반을 죽였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숨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행 8:4).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두우시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곳으로 가야 함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범위는 우주적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는 위임령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 아멘, 복음이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특별한 곳이 있

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곳이 추수를 발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아방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4~16).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의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곳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전파가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의 아들을 보내신 가장 보람찬 이유입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만이 마땅히 주시는 오직 한 가지 임무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임무는 오직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장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행하는 것을 사모하고 이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하는가 등, 선교의 모든 필요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참된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인식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몸의 한 지체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라

증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곳에 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받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 예수께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올해 1,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단기선교를 보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실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영화되어 모시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이레사가 보고싶다!

문 연 석 (집사, 6교구 스리랑카 단기선교팀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나 건너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행16:9). 우리들을 도와달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는 것같은 맑고 깨끗한 눈동자, 무언가 호소하는 듯한 스리랑카의 이레사의 모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1차에 스리랑카를 다녀온 지 만 6개월 만인 지난 12월 10일, 두 번째 스리랑카 단기선교를 떠났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던 8명 중 5명은 "그 눈동자와 미소, 머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그 모습이 보고싶어!"하며 다시 지원한 성도들이었다. 네곰보 - 해튼을 거쳐, 우상승배의 상징인 가면을 주로 생산하는 암발랑고라고 향했다. 그곳에서 왼쪽 엄지발가락이 없는 7살 소녀 이레사를 만났다. 지난 스리랑카 선교 때, 우리는 노방 전도를 나가기 전,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딸인 이레사와 숙소 도원의 자녀 그리고 동네 아이 몇 명을 모아 놓고, '아유 보완?'(안녕하세요?), '예수스와한세 위스와스 끄란노!'(예수 믿으세요!)라는 말과 찬송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나서 노방 전도를 나갔다. 이때 이레사가 따라왔다. 암발랑고 찬송을 따라하고 '메하는 현자인데 위스와스 멋있어!'라고 외치며 우리가 가르쳐 준 찬송을 먼저 불렀다. 가는 곳마다 이 꼬마 전도사는 우리를 따라다녔다. "예수스와한세 위스와스 끄란노!"

그 곳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이레사와 함께 기도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다. "이레사 기도하자"하고 내가 두 손을 붙잡자 고사리 같은 두 손을 꼭 쥐고 맨 땅에 무릎을 꿇은 채 두 눈물 꼭 감았던 이레사! 그 웃는 얼굴과 눈동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이레사가 보고싶다!

이레사가 하나니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딸이 되도록 기도한다.



보고싶은 나라야! 루드밀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 해 자 (집사, 12교구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원)

살림! 우리 12교구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은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 동안의 선교 사역을 위해 30회 이상의 기도 모임을 가졌다. 목사님을 비롯 9명의 대원들을 모으며, 전도 용어, 찬양 등의 훈련을 받고, 카작어로 속삭임과 전도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 이동한 전도 방법도 구상했다.

설렘도 잠시, 반드시 1명씩 전도하여 등록시켜야만 출발할 수 있다는 교회 방침에 따라, 떠나기 하루 전까지 10명을 등록시키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해외 타국에서 길을 잃을까 염려하여 카작어로 된 노방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한국보다 3시간이 늦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옛 수도)에는 흰 눈이 쌓여 앙상하지만 웅장한 나뭇가지에 한창 겨울 눈꽃이 피고 있었다. 9명(남자4명, 여자5명)의 대원들은 3개조로 나뉘어 통역자와 함께 연일 마을을 옮기며 노방전도와 축복전도 그리고 거리 어린이전도 사역을 시작했다.

순간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서 복음 이전에 사역을 호소하던 목사님의 눈물로 진행된 새벽 경건의 시간. 점심 식사 시간에는 가끔 도시락을 써서 밥상 대신 보자기를 방바닥에 깔고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던, 마치 6·25 사면 때와 같은 추억. 아들이 사방에 널린 때 사역 보고하는 평가회에서 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그 감동들.

알마티 시가에서 3시간쯤 떨어진 번두리 강사야 마을에서의 일이다. 온갖 죄(마약, 도박, 타락)에 빠져 살던 한 젊은이가 우리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들었다. 눈길은 멀어졌지만 젊은이의 이름은 '왈리'였다. 왈리는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누군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왔다고 했다. 우리의 예비된 복음을 들은 왈리는 눈길에 띄적 주지 않아 눈물로 목사님의 영접 기도를 받고 함께 전도를 동행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일엔 인근 교회에 동행했다. 바로 그 왈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왈리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순간, 주위에 온통 성령의 역사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우리의 감격스런 증거이다.

꼭같은 7박 8일을 함께 했던 통역자 나타샤, 루드밀라가 물었다. "다시 오실거죠?" 그러나 기억할 수 없는 이별의 순간 이었다. 그들을 꼭 안아주며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레요", "우리 천국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친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엔 어느 곳에 천국 친구를 예비하셨을까? 할렐루야!

언어 훈련 및 CMTC교육 안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귀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b).

2003년도 단기선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연중 상설, 운영하고자 하오니, 모든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고 분사를 선택하여 언어훈련과 CMTC 교육을 함께 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일부터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 참가 신청은 단기 선교팀 구성과 관계 없이 팀 구성 전에 받으시면 좋습니다.

1. 언어 훈련 (16주 코스)

가. 개 강 : 2003. 1. 12(주일) - 수시로 신청, 수강할 수 있음.

나. 각 언어별 강의시간 및 교실배정

언 어	시 간	강의실	언 어	시 간	강의실
영어(초급)	18:10-19:00	베다니홀	루마니아어	18:10-19:00	제1교육관 206호
영어(중급)	18:10-19:00	에바다부	스페인어	18:10-19:00	제1교육관 305호
몽 골 어	18:10-19:00	제1교육관 301호	힌 디 어	18:10-19:00	제1교육관 208호
러시아어	18:10-19:00	나사렛홀	스리랑카어	18:10-19:00	분당 112호
우즈베크스탄어	18:10-19:00	제1교육관 204호	불가리아어	18:10-19:00	제1교육관 304호
타지크스탄어	18:10-19:00	제1교육관 303호	중 국 어	18:10-19:00	제1교육관 201호

다. 강사 및 피교육자 대기실 운영

구 분	시 간	장 소	프로그램
교육 참가자	18:00~19:00	갈릴리홀	CMTC교육준비
강 사	19:00~19:30	교구위원회 회의실	강사회의

2. CMTC 교육

가. 개 강 : 2003. 1. 12(주일) - 수시로 신청, 수강할 수 있음.

나. 장 소 : 갈릴리홀

다. 강 조 : 8개 과목 이수(각 과목별 이수 확인), 전 과목 이수자에게 수료증 수여.

라. 각 과목별 일정 및 시간표

일 정	과목(1강)	시 간	과목(2강)	시 간
매월 첫째주	단기 선교 오리엔테이션	19:10-20:00	총회교회 선교정책	20:10-21:00
매월 둘째주	선교역사(1)	19:10-20:00	선교역사(2) - 카·정·회·불	20:10-21:00
매월 셋째주	전도실제	19:10-20:00	팀훈련의 실제(준비 및 사역)	20:10-21:00
매월 넷째주	단기선교이론과 실제(나태)	19:10-20:00	영성훈련	20:10-21:00

※ 3, 6, 8, 11월의 다섯째 주일은 휴강함.

3. 언어훈련 및 CMTC교육 신청접수

가. 접수처 : 단기선교부 교육훈련분과(각 교구 간사에게 신청해도 됨)

나. 신청 당일부터 교육참가 가능

다. 접수료 : 신청시 일단 팀 납부(언어훈련 및 CMTC교육훈련 포함)

4. 각 교구 지역장은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처 : 단기선교부 행정분과(각 교구 간사에게 신청해도 됨)

나. 피승인 자격 기준

- 1)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세례 교인으로서, 해당 교구장과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 해외 여행의 경제적 사유가 없는 교인.
- 3) CMTC교육 수료자(단 한 개 이상 언어훈련을 받아야 함)
- 4) 심필조 생활, 공직회 출석 등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성도.
- 5) 파송 1개월 전까지 1인 이상 전도하여 결산자 명단을 제출해야 함.

5. 팀 파송원칙 : 교육훈련 및 각종 준비서류와 전도지 등 준비가 된 팀만 파송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 지 혜
(청년1부)

98년 겨울, 청년부로 올라와 작년까지 조장으로 섬겼습니다. 성경 공부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조장이었던 저는 조원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조원들의 출석을 점검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알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올 2003년, 신입부에서 리더로 섬기게 되었고, 조장이었을 때 조원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서민경과 김미정, 2명의 소중한 영혼이 있어 기쁩니다. 이들은 제가 사랑하는 조원들입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기쁘다고 합니다. 신입부 리더가 되고 나서 조원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줘야 할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부족한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고, 조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동감하며 주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매들은 다른 것은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았는데,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아마도 물질적 축복과 건강을 주로 구하는 다른 종교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친구나 부모님께 말하는 것처럼 대화하듯이 기도하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자매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알리는 모습과 말씀 하나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제가 이 두 자매가 신앙이 자라서 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롱.



죄가 뭐가요?

서민경
(청년1부 신입부 과정 중)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꾸준히 다닌 것이 아니고 다니다 말다 하였습니다. 그것도 말씀공부 같은 것은 한 적이 없고 대에배만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충원교회 대학부에 다니고 있는 동생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웠던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오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서로 다른 것 같아 죄가 무엇인지 더 알아야 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한참 빠질 때는 뭔가 불안하곤 했었습니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더 배워서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죄로부터의 평안

김미정 (청년1부 신입부 과정 중)

국민학교 5학년 때쯤에 잠깐 교회를 다녔지만 그 뒤로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부에 있는 친구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에 대해서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공부에도 참여하고 노력 중입니다.

그대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서지 않지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기쁩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타락

일반적으로는 살인, 강도, 강간, 마약, 전쟁, 이기심, 도둑질 등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인간의 악함의 증거로 듣는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죄,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인간의 악함의 증거로 듣는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던 에덴의 시대에는 인간이 악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순간부터 인간은 악해진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중심이던 인간의 마음을 인간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죄를 짓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로 맞이한 하루를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면도를 채 끝내기도 전에 그날은 내 날이 되어 버리고, 하루 중 하나님께 드리는 묵은 묵은 '내' 지갑에서 꺼내 드리는 세금이나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에서 공제해 드리는 부분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한 주간은 그 소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한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수고는 '부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주가 되면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쯤 되면 그 일을 전부 뒤적거리려 수정하면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을 때에는 단지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계획대로 할 수 없을 때에는 마치 간성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종과 자기 앞에 다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행동이 거들됨 때마다 조금씩 퇴색해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된 사상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후에는 사소한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 급기야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성이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또 그들이 얼마 동안이나 낙원의 상태에서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에게 신이 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제 영혼을 제 것으로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타락에서 구원하시려고 고통을 활용하십니다.

다름 란에서는 바로잡는 부분에서 고통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실)

예언에서 새 세대를 살릴까지

1부 -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에덴동산에서의 삶은 아주 편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 거대한 자유 속에 하나님은 단 하나의 제한 사항, 유일한 '조건'을 두셨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창 2:17)는 것이었다.

이 선악과로 인해 죄가 시작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원망하며,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의문을 품는다. 유일한 제한 사항에 불만을 품음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약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른다. 숨을 멈출 때, 답답한 것을 체험할 수 없다면 산소의 소중함을 모른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면 물의 소중함을 못 느낀다. 제약은 놀랄게도 감사와 기쁨을 주는 조건이 된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 자유가 하나님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선악과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조건,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을 나타내는 매개체였던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만물을 통치하지만, 그것은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창시기의 역할일 뿐이다. 인간은 그것을 자꾸 잊으며 자유의 '조건'을 거부한다. 이 자유의 '조건'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조건을 뛰어 넘고자 했던 하와의 의도도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생겨났다. 우리가 거만한 머리를 숙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인간은 한가지 불만을 더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아예 창조 때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간파하고 인간만을 생각한 질문이다. 하나님은 그 분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 당신은 어떤 것이 당신을 칭찬하길 원하는가? 당신을 칭찬하도록 입력된 로봇이 칭찬을 반복하는 것과 인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기쁜가? 선악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자유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선악과'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동물로부터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 아닌 순서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컴퓨터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원에서 살 수 있고, 지옥에서도 살 수 있는 이유이다.

-로이 클레멘츠의 '마스터플랜' 참조-

+ 양모실

1교구 오정현 장로(남65세) 뇌졸중 후 현재 마비된 신체 왼쪽을 재활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임제경 씨(남29세) 교통사고로 발가락 피부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식 부위에 출혈이 잘 멈추지 않습니다. 환우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출혈이 멎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5교구 기윤영 성도(여25세) 22일 골수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된 골수가 몸에 적응되기까지 무척 힘겹다고 합니다. 환우가 이 과정을 잘 견디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일 찬송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1867년 필립 폴 블리스(Philip P. Bliss, 1838-1876)가 무디선생의 집회찬송 인도자로 있을 때, 어느날 무디 선생이 설교 중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해상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칠월같이 어두운 밤, 무서운 풍랑을 뚫고 여객선 하나가 클리브랜드 항구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 아무리 어두워도 두 등대 빛만 발진 하면 안전한 수 있겠다고 서로 확인하였던 선장과 타는 하나 밖에 비추고 있지 않은 항구를 향하여 나아갔으나 결국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쳐 많은 생명을 잃었다. 무디 선생이 외쳤다. "항해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시오, 우리는 다 작은 등대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블리스는 이 설교에 은혜와 감동을 받아 곧 찬송가로 옮겼다.

1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깊이 깊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2절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쉼없이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3절 너의 등불 등우어라 거친 바다 비취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후렴: 우리 작은 불을 커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캄캄한 밤, 배와 등대 그리고 풍랑의 바다가 한 눈에 그려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찬송이다. 큰 등대와 작은 등대 사이로 안전하게 항해하여 들어오는 배를 보는 기분으로 부드럽고도 힘있게 불러야 한다. 특별히 셋째 단에서 리듬이 다른데 주의하여 정확히 불러야 작곡자의 의도가 가사에 잘 실릴 것이다.

(천왕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주관중 성도를 소개합니다



저는 슬하에 1남 1녀가 있으며 서초동에 살고 있습니다. 총원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전혀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온 식구가 불교신자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주일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 예배에 참여했을 때, 예배가 근엄하고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배운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것을 중언이작은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싶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부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서, 그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충만해졌으면 합니다.

(한송희 통신원)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5	황대성	1	장년2부		90	김호영	13	장년1부	신성미(13)
76	이은혜	2	대학부	강해숙(2)	91	신성호	13	장년1부	신성미(13)
77	배진호	3	청년2부	오귀봉(4)	92	윤재훈	13	대학부	오부자화(13)
78	박종화	3	청년2부	오귀봉(4)	93	박옥란	13	장년2부	전창민(13)
79	최연철	7	장년1부	최현미(2)	94	이정주	14	대학부	
80	박경심	6	장년1부	최현미(2)	95	이정주	17	장년1부	이진규(6)
81	박수연	6	장년1부	이옥련(7)	96	김연성	17	청년2부	
82	안상기	7	장년3부	이요남(6)	97	도지숙	17	장년2부	
83	박정자	8	장년1부	박영순(8)	98	김민아	17	장년2부	김현수(17)
84	강영분	8	장년3부	유정자(8)	99	백재은	19	청년2부	
85	윤재문	8	중등부	홍순미(9)	100	문미연	19	청년2부	방준영(1)
86	윤상국	8	장년1부	전종렬(9)	101	지태현	19	청년1부	이달옥(3)
87	김진향	8	청년2부	박종진(9)	102	김해국	19	청년1부	이진규(6)
88	김정란	9	청년1부		103	백승민	19	청년1부	염정자(3)
89	한대희	9	청년1부		104	김세일	19	대학부	

★총찬회관의 한 가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드러

노 지은 (에바다부)

지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에바다부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과 9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가기 전, 여름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던 청년들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 속 깊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수 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자 가슴이 무척 떨렸습니다. 선교기간 동안 예배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카자흐스탄을 둘러보니 그 곳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6일 동안 회사, 농아인 학교, 농아인 협회 등을 방문하면서 힘들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곳 사람들의 병든 영혼을 구원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큰즈 교회에서는 카자흐스탄 통역자에게 부탁해서 수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농아인과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도 카자흐스탄 수화를 배우고 외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식사 전에 예배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둠을 대신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후 큰즈 교회로 가서 그곳 농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연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믿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해 주세요. 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해 주세요. 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삶의 중심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조그만 사랑 나눔

김 윤 경 (사랑부 교사)

고등부 3학년 말, 제가 처음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한 봉사 부서를 찾던 중, 교회 주보 뒷면에서 그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특별한 부서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직접 경험해 본 적 없고, 교회 식당에서 몇 번밖에 접해보지 못한 장애인들의 봉사였지만, 제가 어찌나 복음 받은 조그만 사랑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서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서에 찾아가 교사로 섬기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저의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사랑부입니다.

사랑부 교사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하던 저는, 사랑 2과에서 ‘강정민’ 학생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랑부 교사로서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유난히 다른 선생님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던 정민 씨는 제가 다가가기에도 전에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이를 계기로 정민 씨는 저와 한 반을 이루었습니다.

정민 씨는 저에게 사랑부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생활도 처음일 뿐한 아니라, ‘사랑부’라는 부서에서의 첫 단추가 바르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 주일만 한 번씩 회화를 걸어 저의 안부를 묻고, 주일이면 저에게 먼저 달려와 안기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 있으면 예배 끝난 후에 주의를 주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정민 씨를 볼 때면, 저의 사랑부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시간에, 열심히 배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드리려는 찬양대 학생들, 정성 어린 손길로 헌금을 거두는 헌금위원들의 손길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이 아깝없이 사랑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저에게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주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저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후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환한 미소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는,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제게 맡기신 한 영혼을 찾아 교회로 발견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간절 예배 모범

- ◆ 신앙일백 시도신경 다 같이
- ◆ 찬 송 50절 다 같이
- ◆ 성서요독 8시(분 19분) 다 같이
- ◆ 찬 송 236장 다 같이
- ◆ 성경봉독 고전 15:57-58 인 도 자

(아래 절구를 사용해도 됨)

- ◆ 주기도문 다 같이

“감사”(설교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신자들에게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으로부터의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사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써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요 6:47-50).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견제로부터 승리를 얻은 신자들은 구원을 누리느니라 하거나 흔들리는 것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구원받은 신자는 주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름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옮겨 씨를 뿌리라 한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사 126:5-6).

믿음의 학교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고백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므로, 천사가 나타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명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찾라”(행 10:5). 고백료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를 찾아가서 위해 하인들을 음배로 보냈나(행 10:7-8).

고백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음배에 도착할 그때,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 들은 하나님의 소리는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대표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먹는 음식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랜 관습과 통념에 사로잡혀, 성실하기나 속되다고 쉽게 결정짓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없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버리시나. 왜냐하면 그 사고가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 걸림돌이 되니까요. “또 두 번째 소리 일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 10:15). 이것은 그리스도도의 속죄의 능력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부터 깨끗하고 부정한 것의 구별이 없고, 이방인과 신민이라는 구별도 파기되었으니지요.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생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 말고 함께 가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라”(행 10:20). 베드로의 일행은 고백료의 사자나 베드로를 방문한 다음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백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대해 지내고 있던 배타적 우월감을 버리고 이방인을 한 형제로 여기는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열정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기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의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아 받으시는 줄 깨달았나니”(행 10:34-35).

베드로, 고백료의 양쪽을 오가다보니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전진전 농성진 분이 베드로가 할 일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그 일을 이루는 인간, 이 두가지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일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갈 도구를 어떻게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확립되는 일과 그 일을 맡기신 도구들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비록 그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그분의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때에도 스스로가 기꺼이 주님의 도구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 감사, 헌신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방인들을 귀족케 하시고, 그 자신이 먼저 변화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백료 사이를 오가다보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변화케 하시고 베드로를 변화케 하셔서 도구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문제 많은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목표는 나 자신입니다.

(관현임자)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코틀랜드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Indonesian, and Bengali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